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의 삶의 의미 탐색*

- 전북 임실군 금동마을 이야기 -

김 영 주

(쌀·삶·문명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초고령 농촌사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노인의 삶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탐색함으로써 현재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의 근원과 이들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인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금동마을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탐색하였다. 진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거 이야기에서는 19개의 진술 의미에서 4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가난과 처절히 싸워야 했던 과거의 삶은 '파란과 가난에 의한 질곡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현재 이야기에서는 12개의 진술 의미에서 5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늙어감과 신체적 고통으로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찬 현재의 삶은 '노쇠함과 자녀를 향해 끝없이 희생하는 연명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미래 이야기에서는 7개의 진술 의미에서 3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자신들의 죽음과 함께 마을도 소멸되어 갈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미래의 삶은 '마지막 생과 마을운명에 대한 순응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들이 결론에서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 삶

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직장이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지역이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고령화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03).

은 9.9%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01만 6천명으로 10.3%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노인인구 500만명 돌입과 함께 고령화율 10%대를 동시에 갱신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들어서면서는 10.7%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인 동지역과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은 7.2%, 읍면지역은 18.6%로 농촌지역이 현저히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읍면지역을 다시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는 읍지역의 고령화율이 11.8%인 반면 면지역은 24.2%로 면지역의 고령화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젊은 층은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점차 노인세대만 남아있게 되는 지역이 증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어 농촌지역의 남아있는 노인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은 공동화가 되어갈 것이다. 농촌지역의 쇠락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은 지켜져야 하며 다음 세대가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은 다음세대가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지역에는 점점 더 노인들만 남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더욱더 소외되고 열악한 상태로 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농촌사회에서 일반적인 농촌노인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많은 적든 농사일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으며, 식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 하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 보니 가사 등 생활의 모든 일들을 손수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도시와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삶이 도시노인에 비해 좀 더 고단하고 심리적으로 고독한 삶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 노인복지사업은 정책적인 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농촌노인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혜를 제외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에서는 농촌노인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시 위주로 도입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농촌생활의 환경적 여건과 노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주로 고령의 노인들만 모여살고 있는 농촌사회에서는 그 마을을 벗어난 어떤 사업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러한 환경은 젊은 세대의 정착을 더욱 망설이게 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더욱 촉진되면서 농촌노인들의 소외된 삶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고령화되고 소외된 농촌사회에서 노인들은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의미 짓고 있는지를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의 욕구와 삶을 파악하고 초고령화된 농촌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Campbell, Lisa Cecilia, 2002). 또한 농촌노인들이 이러한 초고령 농촌사회에서 삶을 이어가는 적응양식, 즉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온 근원을 파악함으로써 그들 고유의 삶의 동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또한 새로운 세대가 정착하여 그 지역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지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노인이 살아온 삶은 그들이 영위해 온 개인의 생애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모습까지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노인의 삶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사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온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직접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의 경험을 연구자가 감정이입기술을 통해 구성한 후, 상호주관성에 의해 노인의 삶을 재구성하면서(한경혜, 2004) 그들의 삶을 파악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사회 대부분이 초고령화되어 있고 많은 농촌마을은 이미 고령화율 50%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촌노인의 삶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농촌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양적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김숙, 2004; 최정신, 1999)과 삶의 만족도(김정아·김금이, 1997; 강희숙, 2006)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질적 연구로는 농촌 여성노인의 삶에 관련된 연구(강현임, 2008; 유희정, 2007; Kim, Eunkyung, 2006; 한은진·채옥희, 1996)와 농촌독거노인의 삶(전용화, 2006)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적인 측면에서 농촌거주 노인들의 삶을 보는 관점과, 초고령화되어 대부분이 노인들로만 구성된 농촌지역에서의 노인들의 삶을 보는 관점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노·장·청 등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고 있는 지역과 대부분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고령화 과정 또한 서로 다른 과거사적 배경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농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고령자들끼리만 구성된 사회라는 또 하나의 특수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령 농촌사회에 초점을 두고 그 고령화의 원인과 그 속에서의 삶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을 통한 과거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현재의 삶의 의미를 특별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적 맥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회상되는 과거와 그리고 기대되는 미래는 현재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과거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현재 경험의 중요한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미래는 다가올 죽음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탐색되어 나타난 삶의 의미는 결국 현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체로서의 삶을 설명 할 수 있어 이를 통하여 현재의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의 근원과 그들의 삶의 의미를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초고령 농촌사회의 특성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1960년, 2000년, 2005년으로 비교했을 때, 도시는 2.5%, 5.4%, 7.2%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은 4.2%, 14.7%, 18.6%로 도시에 비해 그 증가율의 변화가 더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율로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에서도 도시가 1970년의 5.4%에서 2000년 25.3%, 2005년 36.7%로 증가한데 반해 농촌은 9.3%에서 78.7%, 108.2%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5년 기준으로 농촌지역을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나누어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읍지역은 55.6%인 반면 보다 더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면지역 노령화 지수는 174.2%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 48.6%에 비하면 농촌사회 인구구조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주요인들로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과 도시 외곽에 입지한 농촌지역이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와 가임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농촌의 가임여성 수의 감소를 들 수 있다(민말순, 1994).

인구의 도시집중은 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기술적, 교육적, 행정적 자원 또한 대도시지역에 현저하게 집중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가 초래되면서 농촌사회가 해체 혹은 위기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윤근섭, 1993), 이러한 문제는 사회발전의 균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즉 농촌사회가 공동화 되면서 종래 활용하고 있던 지역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기반이 감소되고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사회의 초고령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째, 농촌의 청·장년층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농사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과 농촌 젊은층의 노인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킨다(윤순덕, 1995). 셋째,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능력의 낙후는 농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한정자 외, 2002; 윤순덕, 1995), 이러한 농촌여건의 변화는 농촌노인의 경제생활 및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넷째, 젊은층의 도시이주는 자연적으로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동시에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과거 자녀에 의존하던 노후의 삶을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한정자 외, 2002) 새로운 삶의 패턴을 불러오게 된다.

초고령 농촌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일반 농촌사회와 비교하고 있는 최병숙 외(2005)를 보면, 초고령 농촌사회는 노인독신가구나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80.7%로 일

반농촌사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에서는 일반농촌사회 노인이 50.6%인 반면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은 35.4%로 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농사와 자녀보조에 의한 월 평균 소득에서도 일반농촌사회 노인이 평균 48.6만원인 반면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은 40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일반농촌사회 노인의 17.8%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으로 대답하고 있는 반면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은 53.4%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으로 대답하고 있어 건강상태에서도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이 현저하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여러 농촌마을에서는 노인들이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취침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김주석 외, 2006). 즉, 농촌마을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이며 오랜 역사를 지닌 공동의 삶의 공간으로 노인들이 일생을 살아 온 집과 마을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에는 오히려 도시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다(김주석 외, 2006; 윤순덕·박공주, 2006; 민말순, 1994). 특히 이웃 주민간의 강한 유대관계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오랜 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은 노인에게 대한 비공식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한경혜·김주현, 2005).

2) 농촌노인의 삶

농촌노인의 삶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전용화, 2006), 혼자사는 여자노인에 대한 생활(한은진·채옥희, 1996), 농촌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욕구생성의 실태사례(박승희, 2000),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경험(유희정, 2007), 여성노인의 여가생활(강현임, 2007), 사회적 노노돌봄(윤순덕·채혜선, 2008)에 대한 질적 연구들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석소현·김귀분, 2008; 최종천, 2008; Kim, Eunkyung, 2006; 김숙경, 2004; 최연희, 2004; 최정신, 1999; Hong Li and Martin B. Tracy, 1999; Alune, Joseph and David R. Phillips, 1999)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강희숙, 2006; Evans, Ronnie Jeanne, 2005; 김정아·김금이, 1997) 등의 양적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각자 농촌노인의 삶의 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연구 전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촌노인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농촌 저소득 독거노인은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힘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참고 지내고, 비정기적인 용돈과 자식한테 조금씩 받는 생활비로 불안한 생활을 하며,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가지 이상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래식 집안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소외감과 희망이 없는 생활, 죽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전용화, 2006). 이와 같이 노인의 건강상태나 심리적인 특성상 무료하고 허무감 속에 살고 있어 그저 되는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강현임, 2007; 한은진·채옥희, 1996). 그러나 다행히 농촌에는 아직 이웃간의 공동체적인 연대가 남아 있어서 노인들은 이웃들로부터 미미하나마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지원받기도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기도 한다(박승희, 2000). 농촌여성노인들은 계속 몸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추스르며 또한 어려운 경제생

활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소일거리로 남의 일을 하거나 자식들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농사일을 하기도 한다(강현임, 2007). 대부분의 농촌 사별여성노인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 이웃,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대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2007).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사회적 노노돌봄 사업에 참여하여 좀 더 건강한 노인은 여가 및 경제적 활동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노인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윤순덕·채혜선, 2008). 그밖에 농촌노인의 삶에 관한 양적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농촌노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 및 이웃관계, 여가, 사회적 지지, 소외감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마을 및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인 전북 임실군(고령화율 33.8%)의 한 마을인 임실읍 신안리 금동마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2007년 현재 전체주민 5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33명으로 고령화율 63.5%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마을 중의 하나이다. 대상노인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6명이며, 면담 전에 미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였고, 마을이장의 안내로 참여자 선정을 위한 예비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아 왔으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면담에 응할 의사를 보인 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그 내용을 기술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최종 연구참여자로 총 16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성은 연령별로 65~69세 1명, 70~74세 5명, 75~79세 6명, 80~84세 2명, 85~89세 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9명, 가구유형별로는 독거노인 5명, 부부노인 9명, 딸부부와 동거노인 1명, 시어머니와 동거노인 1명이며, 자녀수는 2~13명으로 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2) 금동마을

‘금동’의 원래 이름은 ‘금저골’이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옛날 임실군 청용현 신안면 8개 리(장재리, 신기리, 낙촌, 정촌, 현곡, 연화, 신안리, 사촌) 중의 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500

여년 전부터 형성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함양박씨들이 살다가 떠나고 그 뒤 전주이씨들이 들어와 살았다. 전주이씨가 살던 당시 한 때 괴질병이 돌아 많은 이씨들이 죽게 되면서 살아남은 이씨들은 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연산 10년경에 지금 청주한씨 성의 12대 선조가 귀양을 오면서 그 아들 중 하나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450여년 동안 한씨 중심의 동족마을로 지속되고 있다.

신안서원(新安書院)은 중국의 주희(朱熹)와 우리나라의 한호겸 등 훌륭한 유학자들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으로 조선 선조 21년(1588년)에 한호겸의 제자들이 세웠다. 서원은 정유재란(1597년) 때 화재와 고종 5년(1868년)에 전국 서원 철폐령으로 두 차례 헐렸던 것을 1958년에 다시 세운 것이 전라북도 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서원은 마을에서 골목을 따라 맨 끝자락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어디에서나 쉽게 바라다 볼 수 있으며, 임실군의 유일한 서원으로 이 마을 주민에게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해방 이전에는 신안 8리에서 전답의 70% 정도를 금동마을 사람이 소유할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좌익사상이 이 일대에 퍼지면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좌익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일대가 농민운동과 남노당 창설의 중심지가 되면서 1949년 좌익 과가 관공서를 습격하는 2.6사태가 일어났다. 그 때부터 이 지역은 경찰에 의해 요주의 지역이 되면서 심한 감시와 함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남은 젊은이들 중 다수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거나 마을을 빠져나가 피신하게 되면서 이 마을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금동마을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의 한 마을로 마을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감싸고 있어 나지막한 산을 타고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전주 70리 순창 70리 남원 80리에 위치한 곳으로 30Km정도 떨어진 전주가 임실읍 다음으로 이들의 제2의 생활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사람들은 주로 쌀과 고추를 생산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밖에 담배를 재배하거나, 자급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배추, 상치 등 다른 채소들을 경작하고 있다.

이 마을의 인구구성을 보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여고생 한 명이 가장 어린 주민이다. 다음은 약 1년 전에 고향으로 들어온 40대 초반의 아들과 이 남성에게 2009년 1월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20대 초반의 베트남 여성이 70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또한 10여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53세의 여성이 20대 중반의 아들과 살면서 임실읍내로 일하러 다니고 있으며, 그밖에 1년 전에 이사 온 50대 후반의 부부가 있다. 그 외에는 옛날부터 살아왔던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혼자 사는 할머니가 7명,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1명이며, 전체 주민 35명 중 65세 이하는 10대에서 50대까지 총 7명으로 실제 고령 비율은 80%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마을은 남성중심으로 볼 때 한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박씨, 김씨, 최씨가 각 한 가구씩 차례로 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한 때 80호까지 살았으나 현재는 28호에 불과하며 그 중 9채가 빈집으로 있다.

그밖에 이 마을의 특징으로는 마을 입구에 넓은 광장이 있으며 여름 동안의 휴식공간인 모정과 겨울 동안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회관이 마을광장 주위에 세워져 있다. 또한 마을 입구와 마을 안쪽으로 3개의 우물이 잘 보존되고 있어 오랫동안 이 마을주민들의 중요한 생활의 장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면담과 관찰은 2009년 4월 17일부터 6월 2일 사이 수 회의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관찰하였고, 그 후 마을 이장을 만나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확약을 받았다. 특히 마을 공개와 연구참여자 공개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을 비롯하여 연구참여자 전원이 자진하여 동의하였으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공개는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이장으로부터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에서는 면담의 질과 동의에 따라 1회에서 2회 1:1심층면담 및 집단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마을이장을 통하여 얻었으며, 기록물로는 이장과 이 마을 주민인 향교교장으로부터 청주한씨 족보와 역사기록물의 복사본을 얻었다. 또한 마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은 사진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또는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 및 통계자료들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테보라 K. 패짓(2001)이 제시하고 있는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여섯 가지 전략을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금동마을 노인들의 삶의 분석

1) 과거 이야기 : 파란(波瀾)과 가난에 의한 질곡(桎梏)의 삶	
진술의 의미	주제
① 신안 한가의 특세 ② 좌익운동의 중심지 ③ 마을의 쇠락	(1) 마을의 파란한 과거
① 가난 속에서 시작했던 살림살이 ② 배고픔의 시집살이 ③ 고된 노동의 생활	(2) 고단했던 살림살이
① 토지를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② 시동생에 토지분배	(3) 토지의 증식과 분배
① 가난으로 자녀교육 포기	(4) 못다한 자녀교육
2) 현재 이야기 : 노쇠함과 자녀를 향해 끝없이 희생하는 연명(延命)의 삶	
① 신체적 변형과 고통 ② 신체적 불편함으로 노동의 어려움	(1) 늙어감과 신체적 고통
① 평생 감내해야 하는 생활고 ② 생활비 마련을 위한 날품 일 ③ 고단한 농사일	(2) 여전히 어려운 생활
① 자녀들의 생활형편에 대한 걱정 ② 자녀에게 재산분배 및 지속적인 지원 ③ 자녀로부터 얻는 보람	(3)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희생
① 정부보조에 대한 고마움 ② 마을회관 공동생활	(4) 복지지원으로 다소 여유로움
① 노후되어 가는 마을 ② 늘어가는 빈집	(5) 떠나가는 마을
3) 미래 이야기 : 마지막 생과 사라져 갈 마을 운명에 대한 순응(順應)의 삶	
①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을 죽음 ② 하늘에 맡기는 운명 ③ 죽음은 모든 것의 끝	(1) 받아들이는 죽음
①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후 ② 재촉하는 집안일과 마을일	(2) 정리하는 남은 삶
① 전망 없는 마을 ② 점차 비어갈 마을	(3) 소멸되어 갈 마을

1) 과거 이야기 : 파란(波瀾)과 가난에 의한 질곡(桎梏)의 삶

과거 이야기에서 농촌노인의 삶의 모습은 9개 진술의 의미를 통하여 '마을의 파란한 과거', '고단했던 살림살이', '토지의 증식과 분배', '못다한 자녀교육' 4개의 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이들은 마을의 파란한 역사속에서 처절한 가난과 싸워야 했으며 이러한 가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피나는 삶을 살아왔으나, 힘들게 마련한 전답도 기꺼이 시동생들에게 분배하여 공생의 길을

견고 있다. 또한 가족이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분하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삶의 모습을 ‘과란과 가난에 의한 질곡의 삶’으로 의미지었다.

(1) 마을의 파란한 과거

① 신안 한씨 문중의 득세

450여년 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한씨들은 1588년에 세워진 신안서원을 중심으로 득세하기 시작했다. 임실읍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이 서원에 대해 이 마을 한씨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마을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다. 그 당시 이 마을은 80호 이상 모여 살았으며 그 일대에서는 부자들이 많았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신안에서 생산되는 기름진 쌀도 그 당시의 마을의 부흥과 풍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을의 한씨들은 임실읍 근방 지역에서는 그 위세가 등등했으며 지역의 양반으로 행세하였다.

“서원이 이 마을과 특별하지요. 임실 읍 관내에는 이 곳 한 곳밖에 없었어요. 유족과 부족들 사이가 있던 말이요. 그러니까 신안 한가들이 나가면 한 가닥 했지요. 서원 자체가 의미가 있지요. 임실읍 일원에서 딱 한 간디에만 서원이 이곳에 있어요. 그전에는 신안한가들이 주름을 잡았었어요. 우리 한가 재산이나 사람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할아버지2)

② 좌익운동의 중심지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마을은 사상적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인근 마을의 한 유지가 좌익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대 마을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좌익사상의 학습이 시작되었고, 이 지역 출신들이 남노당 창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1949년 좌익파가 관공서를 습격하는 2.6사태가 일어났고 그 때부터 이 지역은 경찰에 의해 요주의 지역이 되면서 좌익농민운동에 앞장섰던 이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6.25 이후에는 군인에 밀려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고 일부는 마을에 남아 몰래 빨치산을 돕는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도 좌익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 때 좌익들이 막 힘을 썼어. 농사짓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하고, 안 나오면 모두 죽는다고 그러니까 장정들이 막 따라 갔어. 9명 장정들이 죽었어, 쓸 만 했는데 좌익운동으로 많이 죽었지”(할아버지4). “시집을 온게 막 이 동네는 말로는 혈 수가 없어, 인공 때 막 군인은 빨치산 죽일라고 하고 빨치산은 군인 보면 죽일라고 하고 양쪽에서 서로가 말로는 혈 수가 없었지, 전장터였어, 다알아 많이 죽었어” (할머니2)

③ 마을의 쇠락

2.6사건과 6.25 이후 남은 젊은이들 중 다수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거나 피신하기 위해 마을을 빠져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마을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속되는

경찰의 성가신 감시와 보복이 계속되었으며,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지를 점점 좁게 만들어 갔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소외되어졌으며, 궁핍한 생활에 내몰리게 되었다.

“우리가 좌익을 혀가꼬 여기서 폭삭 망했다 이말여,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거의가 다 떠나버렸다 이말여, 여기 있다가는 맥을 못추는데 어떻게 혀, 아 꺼떡허면 임실 경찰서에서 영 성가시럽게 혀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할아버지2). “좌익에 그냥 멋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거여, 인물 잃고, 자산 잃고, 생활이 어렵고 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도시로 진출했어요.”(할아버지1)

(2) 고단했던 살림살이

① 가난 속에서 시작했던 살림살이

가난한 마을에서 자녀를 결혼시켰으나 분가할 형편이 못되어 부모를 위시하여 손위 형의 가족들과 모두 한 집에서 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형제들의 어린 자녀들끼리 자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부간 갈등을 넘어 동서간 갈등이 일어났다. 분가하고 싶지만 부모는 내줄 형편이 못되고, 살림을 시작한 당사자들도 당장 나가 독립할 능력이 안 되었다. 어렵게 분가 하여도 부모나 손위 형으로부터 거의 아무 것도 분배받을 것이 없었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아버지2의 경우는 처가살이, 선산돌보기 등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겪어 나가야만 했다.

“형님들이랑 같이 한 울타리에서 너이 사형제가 사는데 내자식 조카자식들 한 울타리 안에서 사니까 노상 붙들고 싸웠싸 꼴짝으로 처가살이를 가서 1년 농사를 지었어요. 껌보리 서 되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선산이 비어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리 가거라 혀고...”(할아버지2). “아들도 못 먹인다 어디서 쥐, 그래갔고 친정에서 숟가락, 밥그릇 몇 개 갖고 쌀 조개 줘서 그것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알고 말도 할수도 없어, 그래도 안죽고 살아요.”(할머니3)

② 배고픔의 시집살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님에 아직 어린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대식구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적은 전답에 먹을 것은 항상 부족하였다. 여자들은 주로 남의 일을 가서 품삯으로 밥 한 그릇을 얻어다 온 가족이 죽을 끓여 연명하였다. 죽에는 썩이며 고구마대, 시래기 말린 것 등을 넣어 밥알이 동동 떠다닐 정도로 늘려 먹었다. 어느 때는 이것도 부족해 어린 시동생이나 자녀들을 위해 정작 일해서 얻어온 당사자는 굶기가 일쑤였다. 봄엔 아직 덜 익은 보리를 찌서 썩을 갈아 넣어 끓여 먹기도 했다. 이들에게 시집살이는 곧 가난과 굶주림으로 점철된 고통의 세월이었다.

“시아제들 셋이 있고 시어머니 여섯 식구가 산디 아이고, 밥을 전전히 얻어 먹다시피 혀고 녀의 일 해주면 밥 한 그릇씩 쥐, 그러면 그놈 갖다가 고구마대 시커면히 넣어서 죽을 끓여서 시아제들 한 그릇씩 퍼주고 나면 나는 먹을 것도 없어, 새 목아지 마냥 말랐어 둘이다, 일만 혀고 먹들 못헌게”(할머

니1)

③ 고된 노동의 생활

가난한 살림에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등 대가족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남의 일을 하거나 매일 매일의 대가족 생활에서 떠느리는 일상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왔다. 대가족을 위해 하루 세끼 매 식사 때마다 도구질 해서 밥을 지어야 하고, 빨래하기,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등 고단한 일상이었다. 거기에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남의 일을 나갔다. 어린 시동생, 시누이 뒷바라지에서 결혼 시키기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관여하였다. 더욱이 시부모가 병환으로 눕게 되면 돌아가시기까지 떠느리가 대소변 등 일체를 책임지고 돌보게 되며, 돌아가시고 나면 조식으로 밥을 올리는 삼년상을 지켜 내야 했다. 특히 할머니2와 할머니3의 경우는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게 되면서 아직 어린 자녀들과 시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혼자서 떠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먹고 살기위해 끊임없이 남의 일이나 농사일을 해야 했고 동시에 자녀들 학교 뒷바라지에 노부모 봉양 등 가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생활이었다.

“시암에서 물동우다 이어다가 그 열네 권속을 빗허게 세숫물 까장 다 데우다 줬어, 매 끼니마다 도구질 해갔고 밥 해먹고 빨래를 허면 빨래가 세줄 네줄 되었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똥싸고 3년 들앉았고 영감도 똥싸고 3년 들어 앉았고, 신우이 시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그전에는 초상치면 삼년을 밥 채려놓고 또가리 쓰고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3년까지 다 했어, 이야기를 다 못혀 산다는 이야기를 ...” (할머니2), 할아버지가 수술을 다섯 여섯 번을 했어요, 할아버지 배를 보면 놀랄 것이요, 배창시 암것도 없고 다 썰어 내버리고 다 죽는다고 이 한국땅에서는 다 죽는다고 했는디 예수병원에서 다섯 여섯 번을 빗 얻어다가 근계로 빗이 안져버리겠소?”(할머니3)

(3) 토지의 증식과 분배

① 토지를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땅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할아버지2는 빈손으로 분가하여 처가살이 1년, 선산 돌보는 일 5년, 그 밖에 풍수, 지관, 의료행위 등을 통해서 쌀 100가마를 모은다. 이것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집과 전답을 구입하여 정착하게 된다. 할머니1도 빈손으로 남편과 함께 남의 일을 시작하여 못 먹고 안 쓰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자녀들이 아직 어린 동안에 40마지기까지 전답을 마련하게 된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다소의 전답을 마련해 가면서 밥은 굶지 않을 만큼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참 몰른 것 없이 다 잘 알어요, 나 한 때 의사질도 허고, 뿌로커로 처방도 허고, 주사도 사다 놓아주고, 뭐이냐면 침도놓고, 또 인자 산천도 다루고 피 쓰자고 허면 또 피도 써주고, 또 아픈사람 나가 주면 돈주고, 나가서 약 한 5년 살았어요, 5년간 살다보니까 쌀로 한 100가마 쥐게 됩디다. 빈주먹 쥐고 나갔는데 ...”(할아버지2).“일만 허 념의 일만 해먹고 둘이 벌어갔고 논 다 사갔고 많을 때가 한 40마지기 부자 말 들었지, 논 살 적에 목이 새 모가지 마냥 말랐어 둘이다 일만 허고 먹들 못헌게

...”(할머니1)

② 시동생에 토지분배

할머니1은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전답을 마련하게 되지만 시동생들을 분가시키면서 같이 일한 대가로 전답을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전답을 나누어 주게 되자 전답은 원래의 반절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1은 시동생들 결혼에서 패물과 옷가지 등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며 그들이 결혼하고 분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사를 42두럭 산놈을 다 짓나 허면 다 짓들 못혀 시아제들 갈라 쥐야지, 둘째인 내 바로 밑에 시아제는 같이 벌었다고 옛마지기를 주었어, 옛마지기 주고 밭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헛게로 고리 다 들어가 버렸잖여, 그러디 또 셋째 시아제는 고등학교 까장 갈렸으니께 논 서마지지만 주고, 다 거서기들 혀서 내논게 내논이 작더만 내야가 20마지기 밖에 안되야”(할머니1)

(4) 못다한 자녀교육

① 가난으로 자녀교육 포기

가난은 자녀들의 교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희망은 자녀의 교육밖에 없으며 부모가 처절하게 감내해 가고 있는 가난한 삶을 자녀들에게 되 물리고 싶지 않았다. 당장 굶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할아버지4의 경우는 아들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담당교수를 찾아다니는 등 주변의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4도 이러한 열정은 아들에서만 그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굶주림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용돈을 줄 수가 없었고 학교도 충분히 보낼 수가 없었다. 할머니2의 경우는 뽕나무를 길러 누에를 치면서 자녀교육을 시켰으며, 남의 일 등 더 많은 노동을 감수하며 교육을 지속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극도의 어려운 형편은 딸들의 교육을 대부분 포기하게 하였으며, 자녀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었던 부분은 평생의 미안함과 한으로 남아 있다.

“뭘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큰놈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 델 힘이 없어요 못 가르키겠 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교수들을 찾아다녀서 이야기를 혀갔고 도움을 줌 받았어요 농사 그것 머 여남의 마지기 지어 갖고는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가방 못 들고 가요, 다 대학 못 갈렸죠, 절반 갈키고 절반은 못 갈키고 고등학교 졸업허고...”(할아버지2). “우리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대학 안 갈렸어 그때는 내게 돈 십원도 없었어, 그래갔고 돈 돌라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주지 뽕나무서 누에 키워갔고 우리 두 아들 보도시 고등학교 땡기고 딸 중학교 땡기고 그렇게 밖에 못했어”(할머니2), 아들 둘 대학까지 갈칠라고 딸들은 안갈쳐 버리고, 어설피 갈친다고 허야 자식들 중단시키면은 안된다고 딸은 아예 안 갈키고 시방도 원망을 했사, 근데 농사 그것 지어 갖고는...”(할머니1)

금동마을 노인들의 과거는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고된 노동의 생활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된 생활의 단초는 과거 사상적 갈등 속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좌익농민운동에 가담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그 당시 좌익운동은 일제시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후에는 기득권자와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금동마을 노인들에게 이 역사적 사건은 큰 상처의 아픔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통스러운 삶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전답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진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는 이후에도 금동마을 노인들의 삶에 계속하여 흔적을 남기고 있다.

2) 현재 이야기 : 노쇠함과 자녀를 향해 끝없이 희생하는 연명(延命)의 삶

현재 이야기에서 농촌노인의 삶의 모습은 12개 진술의 의미를 통하여 '늙어감과 신체적 고통', '여전히 어려운 생활',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희생', '복지지원으로 다소 여유로움', '떠나가는 마을' 5개의 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노화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생활속에서 고단한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걱정과 언제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으며, 자녀의 작은 마음 씬에서도 큰 위안을 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및 마을회관 보조금은 이들에게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갖게 해 주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마을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삶의 모습을 '노쇠함과 자녀를 향해 끝없이 희생하는 연명의 삶'으로 의미 지었다.

(1) 늙어감과 신체적 고통

① 신체적 변형과 고통

고된 노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함을 촉진하여 허리는 굽고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는 심각한 관절염으로 부풀어 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서있을 수도 걸기도 힘들다. 그러나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의 일을 나가고, 그리고 지어오던 농사를 중단하지 못해 여전히 고된 노동 속의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신체적 고통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과도한 농업노동으로 인한 농부증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치료받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 너무 심하여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활동에는 장애가 크다. 병원대신 저렴한 마을 보건진료소를 이용해 보지만 별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장애 판정을 받아 정부 도움을 받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눈은 백내장으로 점점 침침해져 오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할 엄두를 못내고 있고, 기억력도 점점 쇠퇴해 잊어버리기 일쑤다. 농촌노인의 하루하루는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 가는 인고의 시간들이다.

“이 늙은이 허리 못쓰게 그려, 걸도 못한당게, 아까도 벽벽 기어서 안와, 할아버지도 병신 나도 병신 그려, 그렇게라도 할아버지가 꼬물거리지, 나는 아무것도 못혀, 나 허리 아픈 것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자격증이 없어”(할머니9).“내 허리가 많이 일해 갖고 걸을 때 꼬부리고 땀겨, 일을 많이 했지 손도 이렇게 다 불거졌어요. 그리고 허리를 완전히 피지를 못하고 일을 허싸서 허리가 빨리 굽었어”(할머니6).“나는 눈이 이렇게 안뵈디 눈을 건너내야 현대, 우리집 양반도 그 때 건너냈어 돈이 사십만원이 아딴어 못허지”(할머니7).“기억력이 암것도 없어요, 시방 손에다 두고도 맨날 찾고, 뭘 가질러 가서도 뉘뉘뉘 허다 도로 나오고 내가 그때 시방같이 그랬으면 못살야”(할머니1)

② 신체적 불편함으로 노동의 어려움

신체적 불편함은 스스로 혹은 자녀들의 성화로 농사일을 멀리하게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촌노인 들은 비록 일은 줄였지만 생활을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여전히 남의 일 혹은 자신의 농사일을 지속하고자 애쓰고 있다.

“다리도 아파서 수술했지 허리도 두 번이나 수술했지 일도 못헌당게, 근게 일 허는게 그렇지 뭐”(할머니5).“요즘은 일 못허, 아 못 걷는당게 걸도 못허고 왜 다리가 힘없이 살짝이 내려 앉어버려, 근게 딸이 우리 엄마 내년에 들어 앉어버리면 어떻게 허고, 일 못땡기게 허”(할머니3).“내가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밥 먹으려고 허면 눈물이 나와요, 추접스러서 이렇게 많이 먹은 사람이 여 든일곱살이나 먹은 사람이 경운기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것이요, 주렁(지팡이)을 경 운기에다 실어요 미리, 짚고 갈라고, 그렇게 사요 내가”(할아버지7)

(2) 여전히 어려운 생활

① 평생 감내해야 하는 생활고

농촌노인의 생활은 항상 여유가 없다. 결혼하여 처음 살림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빈손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야 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하여 전답을 마련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계속 되는 자녀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더욱 힘든 생활고에 처하게 된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출가하고 나면, 이제는 특히 아들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어 아들의 생활을 먼저 걱정하고 배려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배 후 여전히 그 전답을 경작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 아들들이 그 선자를 받아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출가하게 되어도 많은 농촌 노인들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다시 자녀들의 손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늘 노심초사다.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남겨진 작은 농사일 과 낱품 일을 통하여 최대한 자립하려고 노력하지만 생활은 늘 겨우 연명할 정도만이 유지될 뿐이다.

“젊은 사람들이 촌에서 살면 저그도 못살야요, 못살야. 촌 사람들은 천원만 갖고 쓸려도 속이 쓰린 디, 꼭 쓸 것만 써야고”(할머니6).“논도 없어 남의 논만 짓고 살아, 고추도 권속이 많은게 먹을 놈 밖에 못허지 근게 힘들어, 농촌에는 못살야 집에서는 애길라고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살아”(할머니5).“자식들은 그렇게 어려워 시방 그래서 다 쥐버렸어, 나는 두 주먹만 쥐었어, 근게 하루라도 내가 남의 일을 가야헌게, 남의 일이라도 가서 벌어야 가스라도 넣고...”(할머니1).“집도 절도 암것도 없어,

우리 집이 근디 암것도 없어서 남의 집 저 낱맹이 산꼭대기 오두막집 하나 살다가 뵈 깍아주기로 허고 지금 사는데로 오라고 허서 왔어”(할아버지6)

② 생활비 마련을 위한 낱품 일

평생 힘들여 일했지만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래 평생 없는 살림살이에서 겨우 살아왔지만 조금 모아 놓았던 전답마저 자녀들에게 다 분배해 버렸다. 자녀들에게 만큼은 부모세대의 어려운 생활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노인들은 다시 빈주먹으로 시작하는 노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일당 3만원의 낱품 일을 전전하고 있다.

“요새는 또 누가 깨도 조깨 심귀 돌라면 깨도 조깨 심귀주고 막 땡겨, 일당 삼만원 받아, 아침 8시 갔다 저녁 일곱시 반에 오지, 그 집이야 현게 끄짜없지”(할머니2). “연금 8만 4천원 그놈 갖고만 못살아, 그래도 하루씩 나가 삼만원씩 들오잖아요, 인자 그 놈 갖고 이틀을 가면 가스 한통은 때잖아, 하루 가서는 못 때고 또 누가 오라고 허면 고놈 조금 허서 인자 기름 한통이라도 넣고 작년부터 손이 느려진게 놉들이 그꼴을 못봐, 이제 놉일도 잘 허면 올해 허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근게로”(할머니1)

③ 고단한 농사일

농사일은 이들에게 천직이다. 내 농사를 짓든, 남의 일을 하든지 이들은 농사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농사일은 이들의 삶의 원천이고 삶 그자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체적 노쇠함은 그 삶을 모두 감당해 내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들은 농사일을 줄여갈지라도 이 삶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고단하지만 함께 해갈 것이다. 할아버지7은 여든 일곱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운기를 몰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어느 자녀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싶은 생각이다. 이젠 맨몸으로 견기조차 힘겨워 처량한 생각도 들지만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그래도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다.

“20마지기에서 너마지기가 네다랭이인디 길어, 다랭이가 긴게 인자 두럭붙이기가 힘들어 영감이 다리가 아픈게 못볼봐 내가 다 볼봐줘야 허, 그놈 두룩을 다 어분데서 다 뵙고 나선게 저녁에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다곤게 이놈 팔아번지지 그러”(할머니1). “원망은 안허 나는 내 거시기가 이렇게 생겼은게 부모가 안갈켜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뵙 할것여, 일 안하고는 못살어 그러니까 죽더락 경운기를 몰고가야 살지, 가다가 고장나면 죽을망정 몰고가요.”(할아버지7)

(3)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희생

① 자녀들의 생활형편에 대한 걱정

부모가 보는 자녀들의 형편은 항상 어렵고, 애써 벌어서 먹고 사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손자녀들의 등록금 문제로 어려워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답을 팔아 이들의 사업자금을 대주지만 사업이 잘 안되기도 하고, 며느리의 중병으로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기도 한다. 두 부부 입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전답을 아들이 손자녀 등록금 문제로 팔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잘 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자녀들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궁핍한 생활보다는 자녀들의 생활형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자녀들도 잘 살아야 잘하지, 저기 먹고 살기도 어렵지 어떻게 잘해,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내가 못가르쳤는데 뭐가 서운히 부모 노릇도 못한 풍신이 자식들에게 대우받고 살라고 허겨어, 그 래야지 어찌”(할머니9). “저그들도 자식들 갈쳐야지 다 힘들어, 시방 아들들 학비땀에 우리 손자들이 대학교, 고등학교라 돈이 겁나게 들어가요, 그래 갖고는 돈 땀에 죽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썬고, 그래갔고 아들들이 그랫싸면 속상하다고, 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서 우리 자식들도 도와주고 손 자들도 좀 도와줘야 겠다 그런 맘이 있더라도 몸이 말을 들어야 허지, 그런게들 죽것어”(할머니5). “아 들이 와서 돈달라, 다른 양반들은 논을 잡고 돈을 내주는데 나는 어찌서 돈을 안주요, 논 몇 마지기 되지도 않아, 논 댓마지기 되야 그것 돈을 달라, 아들 등록금 줄라고 그런디야”(할아버지7)

② 자녀에게 재산분배 및 지속적인 지원

대부분 이 마을 노인들은 평생에 걸쳐 장만해온 전답을 자녀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여 그 논에서 나오는 선자를 자녀들이 받아가도록 해놓았다. 그나마 짓고 있는 농사도 대부분 자녀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이다. 할머니1의 경우는 아들들에게 전답 분배 이외에도 손자의 교육비에서부터 아픈 며느리 병원비 보조까지 해 왔으며, 거기에 아들의 사업실패로 인한 차압을 막 기 위해 노후 생활을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 전체를 기꺼이 내놓기도 하였다. 할아버지1은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막내아들을 위해 매달 비교적 큰 부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할아버지2는 3명의 아들 모두에게 전답은 물론 집까지 마련해 주고, 김장 등 농사지은 농산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땅은 아들들한테 다 이전시켰어, 딸한테는 안줬어 근게 인자 땅에서 나온 쌀 세 받으면 땅에 서 나온 것인게 쪼개씩 아들들허고 딸 너이에게 하나씩 줘”(할머니2). “통장 요즘 가지면 살지 했더니 영감 죽고 일 년도 못 되서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고 왔어 큰아들이 인자, 저그도 인자 각시 아프고 아 들이 그렇게 책을 들고 근게로 둘이 서로 조합에서 내다 썼지, 그런게로 차압이 들을 밖이 ...”(할머니 1). “자녀들에 대해서는 거시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제가 활용이 많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자식들 한테 투자를 해줬으니까 농사지어서 쌀 다 찌어놓으면 뭐여 와서 착착 실어다 먹재, 김치농사허서 다 담아서 주고...”(할아버지2), 시방 며느리들은 촌에서 시어머니들이 김치 다 담아주고 쌀 다주고 그 래도 아프다”(할머니2)

③ 자녀로부터 얻는 보람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딸 사위가 은퇴 후 고향에 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도 한다. 자녀들이 계를 만들어 매달 돈을 모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집안행사에 비용으로 사용한다. 매 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씩 용돈을 준다. 이 용돈은 농촌노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몸이 약한 어머니에게 보약이나 보

온매트를 사오기도 하고, 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려고 신경을 쓰기도 한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하며, 어렵게 같이 키워온 손자가 취업하여 용돈을 주기도 한다.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평범하고 크지 않은 마음 씀씀이에 보람을 느끼며 고마워하고 있다.

“애들은 잘혀, 전화 자주하고 용돈 조깨씩 주고 그러면 잘 헛거지, 손 별리는 건 없어, 저그가 잘 산 것이 좋지”(할머니8).“우리도 달달이는 안주더라도 저그들이 달달이 모타갔고 뭘 행사가 있고 내 생일이 돌아오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쓰고, 뭘 살라면은 그 돈으로 쓰고 그런게 달달이 준셈여”(할머니6).“아들들이 보약을 갖다 준게 보약을 먹으면 식사는 맛있어, 장판은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인턴(인터넷) 해갔고 사왔어”(할머니2).“우리 손자가 참 착혀, 내가 가거나 지가 오거나 하면 돈 오만원씩을 쥐, 주면은 너쓰고 엄마 쥐 하면은 할머니 나 돈 잘 벌어요, 할머니 받으세요 그런게...”(할머니1).“서울 국방부에 가서 딸이 거기 가서 전화받고 그랬었어요, 거기 가서 저그 엄마 생일잔치도 한번 새어 주고 그랬어요, 그것만도 다행으로 알아.”(할아버지7)

(4) 복지지원으로 다소 여유로움

① 정부보조에 대한 고마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농촌노인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다. 아직 연금이 생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요금에 해결되니까 텃밭에서 반찬거리만 조달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보조만으로도 어느 자식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서 지지가 되고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밖에 국민연금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적게 넣고 현재 몇 배 받고 있어 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경우 전동휠체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조받기도 하고, 나이 들어 소득이 없고 자녀로부터 도움이 어려워지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정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전에 사는건 말로는 헛것도 없어, 시방은 세상이 좋은게 편혀지, 시안내 양노당가 놀고”(할머니2).“둘이 산게 정부에서 13만원 나온다, 그거 거시기 노인연금 우리도 나오더만 그것도 감사해서 죽겠어, 십원 하나도 못 번디 얼마나 감사덕지 한지 고마워”(할머니9).“노인들한테는 정부가 정말 잘 허는 거여, 아싸리 말혀 자식보다 나서, 어떤 자식이 그렇게 달달이 쥐, 정부서 주니까 얼마나 좋은 지 몰라”(할머니7)

② 마을회관 공동생활

마을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은 일 없는 겨울동안 마을회관의 공동생활이다.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겨울철 회관 난방비와 점심, 저녁 두 끼의 공동식사비의 일부로 지출된다. 낮 동안 마을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지냄으로써 각 가구의 난방비 절약뿐 아니라 사교와 여가의 시간을 갖게 하고, 함께 모여 식사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들은 겨울동안의 마을회관 공동생활을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정도만으로도 좋은 세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은요 국가에서 경노당에 해주니까 기름도 넣고 따뜻하게 해주고 모아서 밥도 해먹고, 만약 회관이 없으면 각자 집에서 추운디 떨면서 얼고 있을 판여”(할머니6). “농사 다 끝나고는 양노당에 남자고 여자고 짝 찾아 항상, 노인당 돈이 온게로 석유 때고 하루내 거기 가서 화투치고 놀고 밥 히먹고 야 재밌지, 혼자 우독허니 앉아 있는 것 보다”(할머니2)

(5) 떠나 가는 마을

① 노후되어 가는 마을

마을입구는 넓은 광장으로 이루어져 들고 나기에 편리하다. 산천에 둘러싸여 있어 공기도 깨끗하다. 거기에 마을 우물물은 항상 넘쳐흘러 마를 날이 없이 풍족하다. 그리고 지대가 그 일대에서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홍수날 일도 없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들어오는 이 보다는 나가는 이가 대부분이다. 집들은 세월과 함께 노후되어 가고 우물은 관리되지 않아 오염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마을을 재건할 의욕도 지식도 부족하다. 부모들은 과거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아예 후손들을 불러들일 생각도 없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미 도심 생활에 익숙해 있어 마을은 과거세대의 흔적일 뿐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팔팔팔 넘치지, 그런데 이것을 품어서 깨끗하게 히야는디 품을 사람이 없어 못난둥이만 남아있는 거여, 이게 근게 특히 우리 부락이 더 고령화만 되고 명색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400년 이상 산 동네치고 건물하나 쓸만한 것이 없어요, 새로 지은 것이 없어요, 모다 근육이 골병이 들어갔고 다 떠나버리고 죽지 못하고 남아있고 있는 사람만 있으니까”(할아버지2).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솔직한 얘기가 부야가 나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이 동네 발전을 좀 시키고, 동네 이장 욕심이쥬, 근데 허지만은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또 애로점이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할아버지1)

② 늘어가는 빈집

이 마을 스물여덟 가구에 아홉 채의 빈집이 곳곳에 끼어 있다. 그리고 이들 빈집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들과 어울려 이 마을의 전형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빈집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 허물어져 가면서 이 마을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 동네는 없은게로 다 나와 버렸지, 조다 나가 산게 그러, 젊은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이런테서 대체 이렇게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했는데 뭣허게 잡아 벨수가 있어야지”(할머니5). “자식이고 딸이고 들어올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영감 내외 둘이 이렇게 쪼께 뭐 심귀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 별것이 없어요”(할아버지3). “빈집이 겁나 그러지 않아도 요참에도 집이 짜그라지고 집 목은 것 뒤안이 다 썩어나..”(할머니3)

금동마을 노인들은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다. 어려웠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끝없이 고된 생활은 노쇠함과 함께 신체적 변형과 이로 인한 고통을 남겨 놓았다. 그들은 혼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와 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하여 분가하였으나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못다 한 책임에 아쉬워하며 그동안 마련했던 전답을 대부분 자녀들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의 생활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의지할 생각이 없다. 금동마을 노인들은 그들의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여전히 고된 농사일과 낱품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을회관 보조금으로 조금은 여유로워진 삶에 감사하고 있으나, 과거 상처의 흔적은 이 마을에서의 삶을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시켜 놓았다.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전수하고 싶지 않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은 비어가고 있으며, 금동마을 노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삶은 자신들의 대에서 끝이 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미래 이야기 : 마지막 생과 사라져 갈 마을운명에 대한 순응(順應)의 삶

미래 이야기에서 농촌노인의 삶의 모습은 7개 진술의 의미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죽음', '정리하는 남은 삶', '소멸되어 갈 마을' 3개의 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이들은 미래에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늘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가야하지 않는가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생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러한 죽음은 바라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마지막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그들 스스로 살아가다가 별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을 또한 그들의 죽음과 함께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지막 생과 사라져 갈 마을의 운명에 대한 순응의 삶'으로 의미 지었다.

(1) 받아들이는 죽음

①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을 죽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 마을 노인들은 아프지 않고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고운모습으로 남겨지길 바라기도 하지만, 이 소망의 첫째 이유는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고통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물적·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을 조용한 죽음을 바라고 있다.

“인자 앞으로 갈 날이 가깝게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힘이 안되고 그냥 조용하게 죽으니까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걱정은 없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면은 그게 제일 복이지”(할머니2). “늙은이는 오래 살면 못써, 자식들에게 짐만 돼, 죽음병이나 잘타면 좋겠어”(할머니9)

② 하늘에 맡기는 운명

이 마을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 미련이 없다. 때가 되어 떠날 때가 되면 기꺼이 가겠다는 생각이다. 생명이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절대자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단지 하늘에서

부르기까지 고생스럽지 않게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계 인제 고상 안하고 가는것이 행복이지, 오라고 하면 인제 가야지”(할머니5). “살만큼 살다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 되지, 죽음에 대해 걱정은 안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으면 되지”(할아버지4). “나는 앞으로 잘 될라고도 안하고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일모래 그냥 땅속으로 갈 예산만 해요 나는 죽음에 대해 무신 것이 없어요, 죽으면 인제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고..”(할아버지7)

③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이 마을 노인 다수는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고 있다. 세상살이에서 깊어져야 했던 구차한 많은 짐들을 죽음과 함께 모두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죽음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미련이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오기까지 남은 삶을 기꺼히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근게 몸이 아파버리게 인자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말아버리지 뭐, 이러다 저러다 죽기 밖에 더 허”(할머니3). “여기서 남아 있는 우리는 가버리면 끝나는 거여”(할아버지1). “영감 내외 둘이 이렇게 쪼개 뭐 심귀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 별것이 없어요”(할아버지3)

(2) 정리하는 남은 삶

①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후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일부 전답을 남겨놓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들 뒷바라지로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이 마을 노인들은 자신의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특별히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행복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남겨 논 논마지기 토지 마지기는 미안하지만 지금 자식들에게 못주겠다 이거여 갖고 있다가 죽을 때 되면은 거천헌 자식한테 그것 주어버리고 오라고 나눠주지 말고 나는 지금 그런 부탁을 허는 거여.”(할아버지2). “지금 내 소원은 우리 아들들 건강해서 살면 그것을 제일 행복으로 아요, 아들들 건강하면 나도 괜찮은 것 아니요”(할아버지7). “앞으로는 아 몰라요 강 아들에 대한 기대는 안되지 그렇지요”(할머니4)

② 재촉하는 집안일과 마을일

앞으로 살날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할아버지2는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보고 5년 동안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계획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마을에 남아 남겨질 일을 계속 할 후손이 없어 마음이 더욱 조급해 진다. 그래서 더욱 남겨진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놓고 가기 위해 집안일과 마을일들을 재촉하고 있다.

“십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우리 종중일도 지금 재촉을 합니다.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갈 준비를 지금 우리 대종(大宗)사업도 지금 미정중인 것을 자꾸 압축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당력이 조금 있을 적에 살았을 적에 체계를 하주고 가야겠다 후손들한테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어요.”(할아버지2)

(3) 소멸되어 갈 마을

① 전망 없는 마을

이 마을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이 다하면 그와 동시에 마을의 운명도 끝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노인들도 이 마을의 계승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앞으로 이 마을을 지키고 유지해 갈 젊은 세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난의 터인 이 자리에 내 자녀를 남겨놓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가난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삶을 자신들의 세대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여기서 남아 있는 우리가 가버리면 끝나는 거여”(할아버지1). “지금 내가 한마디로 헐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동네는 짝수가 노래요. 앞으로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전망이 전혀 없나 그렇게라도 누가 하나나 둘이나 이 동네를 어떻게 장래 끌고 나가봐야 것다. 또 계승을 시켜봐야 것다 현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미래 생활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할아버지2). “누가 여기에 와서 살라고 그러것어. 먹고 살게 있어야지. 우리야 기왕 살았으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 누가 와서 살라고 허것어? 그냥 우리로 끝이지...”(할머니9)

② 점차 비어갈 마을

마을은 점차 비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는 다 나가고, 현재 누구도 들어와 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노인세대는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마을 노인들은 마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도 그것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의 미련은 있다. 자신들의 사후에 자손들이 들어와 산다는 기대는 없지만 자신이 살던 빈집이라도 일 년에 몇 차례 찾아와 사용함으로써 이 마을의 명맥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들씩 가다보면 마을에 남은 사람 없것지. 아마 이렇게 가다보면 마을이 없어지것지. 우리 가고 나면...”(할머니7). “자식들이 뭐 도시서 뭐 이런 찌그러든 다 빈집이는 들을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 쪼개 살다 몰라 짜그라 드는 수밖에이지”(할머니3). “이 마을은 앞으로 집이 짝 비지, 아 근게 어찌 어떤 총생들이 서울서 와서 살것어? 누가 와서 살것어 인제, 자녀들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 노인네들이 죽어버리면 인자 짝 집이 빈것이지. 뭐 어찌 동네 없어져 버린것이지”(할머니1). “인제 판테로 놀러 가느니 고향이라고 와서 밥 한 끼니 해먹고 인제 문 닫아놓고 간것이지 뭐 안그러것어? 나 혼자 살다 죽어버리면 아 문닫아 놓고 그도 엄마네 집이라고 한 번 오면은 그래도 고향에 집은 있어야 혀. 그래도 별초를 허로 오고 그러면 내집이라고 와서 밥이랑 허먹고 허니까 좋더만...”(할머니2)

금동마을 노인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함께 마을이 사라져 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들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들어와 살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마지막을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마지막과 사라져 갈 마을에 대해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금동마을 주민들의 과거 상처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양식과 마을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5. 논의 및 함의

본 논문은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 증언, 문헌 및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아 16명의 노인을 면담하였으며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현재이야기를 중심으로 농촌노인의 삶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비교·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은 노쇠함으로 인해 신체적 변형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은 이들의 친직인 농사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질병으로 오는 고통과 그로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전용화, 2006; 한은진·채옥희, 1996)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인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강희숙, 2006;)와 삶의 질(김숙경, 2004; 최정신, 1999)에 관한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이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농촌노인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농촌노인들은 평생에 걸쳐 마련한 전답을 대부분 자녀들에게 분배해 준 상태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남의 일을 하거나 조금 남겨놓은 자신의 농사로 고단하고 여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용화(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강희숙, 2006; 김숙경, 2004)와 삶의 질(최정신, 1999)에 대한 양적 연구에서도 경제상태는 농촌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농촌노인은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삶의 질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농촌노인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의 도시이주로 단절된 관계가 농촌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전용화(2006)의 연구와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생활해 가는 것을 농촌 여성노인의 여가생활의 한 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강현임(2008)의 연구, 그리고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삶에서 슬픔새 없이 자녀를 위해 독하게 살아가는 것과 자녀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성공적 노화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희정(2007)의 질적 연구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인 김수현, 외(2008)의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생활만족도(김광용 외, 2006; 김숙경, 2004), 자녀의 생활정도(최정신, 1999)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농촌노인이 대부분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의 삶의 질이 농촌노인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농촌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마을회관 운영비 보조로 인해 조금이나마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겨울동안의 마을회관 공동생활은 많은 농촌노인들에게 유일한 여가생활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지원이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농촌 저소득 독거노인이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흡하여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용화(2006)의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부보조에 의한 삶의 여유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숙경(2004)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생활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회관의 공동생활이 농촌노인의 중요한 여가생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금동마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보조의 현실화이다. 즉 이러한 생활의 보조가 농촌노인의 여가생활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농촌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 농촌사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금동마을 노인들의 삶을 시간적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추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이고 횡단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는 것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고령화된 농촌마을 노인들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마을의 변화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을 탐색하고, 농촌노인의 삶을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 마을이 공동화 되어가는 과정을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서 미래에 전개될 상황까지를 밝힘으로써 예방을 위한 문제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한 농촌마을이 초고령화되는 과정에는 그 마을만의 역사적 상황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동마을과 같이 초고령화되어 가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금동마을 노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진술에서는 그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비롯하여 그로 인한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대부분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 개개인의 생애와 마을의 운명에 대해 새롭게 개척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을 노인들의 역사적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인 저력으로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애사적 해석이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기 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

한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도 이 마을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여 마을의 재건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마을의 재건은 거의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주민들의 의욕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지역사회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마을주민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책임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금동마을 주민들의 긍정적 생애사적 해석과 이로 인한 마을 재건을 위한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에서의 생활에 대한 복지감이 높아져야 한다. 금동마을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겨울 동안의 대부분의 낮 시간을 마을회관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서의 공동취사 및 친교의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익한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마을의 이러한 생활 패턴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로써 중요한 장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 생활이 이 마을 주민들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체적 생활이 초고령 농촌마을이 유지되고 존속되게 하는 공동의 과업으로 기획되고 수행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가 개입·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동마을 노인들은 마을회관에 대한 유용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금은 겨울 동안의 연료비 정도만 충당하고 있어, 노인들의 공동체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 면에서 많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 노인들의 마을회관에서의 여가생활과 공동 취사생활은 이들의 복지적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이 좀 더 여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금동마을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농사일을 하거나 남의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힘든 농사일을 지속하고 있다. 고령의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마을에서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이 각자 스스로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고령임과 동시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고령의 나이에 생계를 위해 힘겨운 노동에 처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기초노령연금 등의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들의 삶을 탐색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가 모든 초고령 농촌사회 노인들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화된 농촌마을에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친 다수의 초고령화된 농촌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질적 탐색연구와 동시에 초고령 농촌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병행되어 좀 더 포괄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초고령 농촌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마을의 초고령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그 마을에 작용되어 왔던 특별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

하고 풍성한 삶이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대안을 찾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한경혜.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강현업. 2007. “농촌여성노인의 여가생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강희숙. 2005. “농촌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강희숙. 2006. “농촌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11): 397-398.
- 김동배. 2003.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 김미혜·권금주·임연옥. 2004. “노인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의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195-213.
- 김수현·강형정·김윤정. 2008. “농어촌 여성노년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김숙경. 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 김양이. 200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복지연구』 23(-): 203-229.
- 김정아·김금미. 1997. “일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 『세명논총』 6(-): 339-354.
- 김주석 외. 2006.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농림부).
- 테보라 K. 패짓/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박대식. 2004. “농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4년 경제사회연구회 Workshop 결과보고.
- 박승희. 2000. “농촌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욕구생성의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34(4): 1007-1036.
- 박재간. 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출판사.
- 석소현·김귀분. 2008.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 17(3): 311-321.
- 신경림. 1994. “질적연구방법의 철학적 배경”. 『성인간호학회지』 6(2): 174-19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5.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승환·윤동성. 2008.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유희정. 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 634.
- 윤근섭. 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 9-37.
- 윤순덕. 1995.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한국노년학연구』 4(-): 119-125.
- 윤순덕·박공주. 2006.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델파이연구”. 『농촌계획』 12(3): 97-106.
- 윤순덕·채혜선. 2008. “농촌지역 사회적 노인돌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40(-): 31-54.
- 이효선. 2006. “질적 연구에 의한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 73-99.
- 전용화. 2006. “농촌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홍식 외. 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최병숙·박정란 외·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005.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 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연구원.
- 최연희. 2004.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2): 87-100.

- 최정신. 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21-139.
- 최종천. 2008.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가족형태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한경혜. 2001. “농촌마을의 생태적 특성과 농촌노인 사적 관계망의 보호기능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343-36.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한은진·채옥희. 1996. “농촌의 혼자사는 여자노인에 대한 생활시간 사례분석”. 원광대학교논문집, 17(-): 65-74.
- 한정자·한경혜·모선희·유성호·김양희.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농림부).
- 강원일보. 2009. 4. 9. “농촌을 전 국민 여가공간으로 만들자”. 강원포럼(신해식).
- Kim, Eunkyung. 2006. “The Hidden Population: The rural female Elderly in Korea and their Economic Statu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4(1): 139-158.
- Hong Li and Martin B. Tracy. 1999. “Family support, financial needs, and health care needs of rural elderly in China: A field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4: 357-371.
- Alune, Joseph and David R. Phillips. 1999. “Ageing in rural China: Impacts of increasing diversity in family and community resource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4: 153-168.
- Kozo Nakamura. 2008. “A super-aged society and the locomotive syndrome”. *Journal of Orthopaedic Science*. 13: 1-2.
- Kazuoki Ohara. 2004. “Housing policy towards a super aging society: rom building specifications to special needs measure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4: 210-213.
- Kazumi Hayase. 2004. “Japanese Women in a Super-Aging Society”. *Nagiya Women's Studies Group*.
- Johnson, Craig. 200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Rural Social Work Practice*. 271-290.
- Yoon, Dong-Pil and Lee, Eun-Kyoung Othelie. 2004. “Religiousness/Spirit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ural Elderly Whites,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0(1): 191-211.
- Evans, Ronnie Jeanne. 2005. “Successful aging : A comparison of rural and urban older adults in Iowa”. Ph. D., The University of Iowa.
- Campbell, Lisa Cecilia. 2002. “Life stories altered: the effect of clinical depression on reminiscence fundtions in rural older adults”. Psy. D.,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 Study of the Meaning of the Elderly's Life in the Super-Aged Rural Community

Kim, Young-Joo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super-aged rural community and the meaning of the elderly's life in such a unique society by looking into the elderly's lif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o the future. For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have been done with 16 old people living in Geumdong village, Imshil-gun of Jeonbuk Province, one of the most aged communities of Korea.

By analyzing their statements, 4 themes have been found from 11 meanings of statements on the past lif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ir fight against bonds of extreme poverty and misfortune.

On the present lif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ir bare existence in senility and their endless sacrifice for the children as they are never free from the physical pains accompanying the ageing and the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5 themes have been found from 14 meanings of statements.

About the future lif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ir calm acceptance of the fate of their later life and their village which they think will disappear after they die, 3 themes have been found from 7 meanings of statements.

Key words : super-aged, rural community, elderly, life

[논문 접수일: 09. 07. 18, 심사일(재심사): 09. 08. 03(09. 02), 게재 확정일: 09. 09. 22]